

## 한덕수 총리, 호우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

- 장마가 다소 소강된 오늘, 내일 중 신속한 응급복구를 진행할 것 당부
- 현장과 좀 더 밀착한 재난대책을 위해 문제점과 답을 현장에서 찾을 것 주문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9일(수) 08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기관\*과 영상회의를 갖고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.
  - \* 행안·교육·국방·농식품·산업·고용·환경·문체·국토부, 경찰·소방·산림·기상청, 17개 시·도
- 한 총리는 “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과 내일 장마가 다소 소강상태일 것으로 전망된다”고 말하고, “우리에게 주어진 재정비의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.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2차피해를 방지하고, 대피해 계신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을 당부했다.
  - 이어서 한 총리는 “또다시 몰려올 극강의 호우에 대비하여,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대비 태세와 협조체계를 재점검하고, 특히, 대피안내나 명령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, 위험 우려지역에 계신 분들과 소통체계는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·점검해줄 것”을 주문했다.
  - 이와 함께, 한 총리는 “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”고 말하고, 현장과 좀 더 밀착한 재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“며, ”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, 답도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“고 당부했다.
- 이날 회의를 마치며 한 총리는 “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장, 부기관장이 신속하게 상황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”고 말하고, “시·군·구 재난상황실이 24시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, 보완해달라”고 지시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신강민 (044-200-2346)
	안전환경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 김민수 (044-200-2348)